

# 乞丐傳 研究

## — 賤民傳 研究의 一環 —

許 椿\*

###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 1. 乞丐傳의 諸樣相
    - 가. 神異性
    - 나. 倫理性
    - 다. 非凡性
    - 라. 眞率性
  - 2. 乞丐傳의 變貌 및 史的 意義
- III. 結 論

## I. 序 論

傳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傳과 書事·野談·小說과의 關係 定立, 傳의 變貌 過程과 그 의미 추적, 文學사적 의의 究明, 작가 연구, 유형별 연구 등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傳 자료집도 출간되었다.”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1) 번거롭지만 관련된 연구를 몇 들어 보면,

沈晶燮, “三國史記 列傳의 文學的 考察”, 「文學과 知性」 35호, 文學과 知性社, 1979.

安秉高, “傳의 文學的 變容”, 「韓國學論叢」 2집, 國民大 韓國學研究所, 1979.

趙鍾業, “古代小說 形成上의 史傳體와 變文”, ——刊行會 編, 「藏庵池憲英先生古稀記念論叢」, 螢雪出版社, 1980.

高敬植, “高麗時代의 傳 研究: 東文選 所載 作品을 中心으로”, 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81.

楊熙喆, “傳類小說의 形成 研究”, 西江大 碩士學位論文, 1981.

任侑炅, “李銍 ‘傳’ 研究”, 梨大 碩士學位論文, 1981.

한 人物의 行蹟을 중심으로 事實에 충실하여<sup>2)</sup> 기록하며 一人의 始末을 敍한 것<sup>3)</sup>이 傳이므로, 傳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물이다. 敍事文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그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있음으로 해서 인물 연구는 작품의 깊이 있고 폭 넓은 천착에 핵심적인 몫을 차지한다.<sup>4)</sup> 傳에 있어서도 立傳 대상 인물과 이들을 대하는 立傳者의 태도 변화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立傳된 인물의 삶을 조명해 보는 일은, 그 작품의 含意를 파악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며 작품의 評結部가 없거나 있어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本稿에서는 인물의 한 부류 중 賤民, 그 중에서도 賤民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절인이 立傳된 乞丐傳의 양상과 변모 그리고 史的 意義를 살펴보고자 한다.

傳은 본래 解經과 史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속성상 유교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으며 貶보다는 褒를 위주로 記述되는 것이다. 물론 <酷吏列傳>, <佞幸列傳>(「史記」列傳), <酷吏傳>, <嬖幸傳>, <姦臣傳>, <叛逆傳>(「高麗史」列傳)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鑑戒가 되므로써 윤리적인 면을 褒揚하고자 함이다. 經典 解說과 史體 敘述 그리고 기록의 객관성과 논평의 주관성, 즉 문학과 역사<sup>5)</sup>라는 傳의 이중적 성격은 자연히 傳의 개념 규정에서부터 多岐性을 띠게 하였으며, 조선조 후기에 오면 傳이 野談과 混淆되어 그 내용과 형식에서 正傳과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전의 장르적 성격에 관한 논의도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崔信浩, “傳記·傳奇·小說”, 「聖心語文論集」 5집, 聖心女大 國文科, 1981.

金均泰, “傳의 장르적 考察: 고려 이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刊行會 編, 「雨田辛鎬烈先生古稀紀念論叢」, 創作과 批評社, 1983.

金明昊, “神仙傳에 대하여”, ——刊行會 編, 「새터姜漢永教授古稀紀念 韓國판소리·古典文學研究」, 亞細亞文化社, 1983.

金惠淑, “傳·書事(記事)·野談의 대비적 고찰: 상호연관성과 관련하여”, *ibid.*

李京雨, “文集所載 「傳」樣式의 變貌樣相”, *ibid.*

趙泰英, “傳」樣式의 發展樣相에 관한 研究: 烈女傳 유형과 發展된 逸士傳을 중심으로”, 서울大 碩士學位論文, 1983.

韓鉉洙, “傳」樣式의 展開樣相研究: 初期作品을 中心으로”, 延世大 碩士學位論文, 1983.

成基玉, “傳의 장르론적 檢討”, 「울산어문논집」 1집, 울산공대 국문과, 1984.

金均泰, 「李鈺의 文學理論과 作品世界の 研究」, 創學社, 1986-a.

——, 「文集所在傳資料集」, 啓明文化社, 1986-b.

朴熙秉, “朝鮮前期 人物傳 研究”, 「釜山漢文學研究」 3집, 釜山漢文學會, 1988-a.

——, “異人說話와 神仙傳(I)·(II): 說話·野譚·小說과 傳 장르의 相關양상의 해명을 위해”, 「韓國學報」 53·55집, 一志社, 1988-b·1989. 等.

2) 金均泰(1986-b), *ibid.*, 索引, p.1.

3) 「四庫全書提要」, 史部 傳記類.

近藤春雄, 「唐代小說の研究」, 日本, 笠間書院, 1978, p.155. 再引.

4) 許榕, “古小說의 人物 研究: 仲裁者를 中心으로”,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86, p.5.

5) 金明昊, *op.cit.*, p.665. *passim*.

왔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傳을 소설에 포함시키는 견해<sup>6)</sup>, 선별적으로 소설로 인정하거나<sup>7)</sup> 短形叙事體의 下位 장르로 보는 견해<sup>8)</sup>, 傳의 독립적 성격을 주장하는 견해<sup>9)</sup>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 傳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통적인 傳과 雜錄을 구별하기도 하고 傳에 野談·逸話·說話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sup>10)</sup>

本稿는 이러한 논의의 適否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辯證은 할애하지만, 필자는 일단 傳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조선조 후기에 두드러지는 逸話 중심의 變體의 傳을 포괄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傳은 雜錄·野談·逸話·民譚 등과 분명히 다르지만 조선조 후기에 을수록 상호간의 연관과 영향이 많아져서 그 경계 구분이 매우 모호해지기 때문이다.<sup>11)</sup> 그러나 傳의 범주를 너무 넓히면 장르 규정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傳 고유의 특성이 중심이 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이며, 그 실제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치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一人一事의이라 하더라도 소설적 지향<sup>12)</sup>과 소설적 구성을 갖춘 傳은 엄격하게 선별하여 소설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인물의 행적을 그리므로, 傳은 대상 인물의 인적 사항이 상세하고 編年的 서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優人孝子君萬傳>(權近, 1352~1409)처럼 賤民을 立傳한 예는 鮮初에 이미 나타나고 있으나 賤民傳은 대체로 조선조 후기에 產出되었는데, 인적 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賤民을 대상으로 일화 중심의 傳을 記述했다는 것은 立傳者의 의식 변화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立傳된 사회의 분위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傳의 형식을 검토하여 작품의 현실 인식 방식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 逆도 한 방법일 것이다. 즉 立傳 對象人物, 立傳意圖, 작품에 나타난 세계관 등을 검토하므로써 傳의 변모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傳은 어떤 인물이 탁월한 행적을 남겼을 때, 즉 윤리적으로 稱善할 만한 일을 했을

6) 李家源, 「李朝漢文小說選」, 民衆書館, 1960.  
林明德 主編, 「韓國漢文小說全集」, 中華民國 中國文化學院, 1980.  
李家源, 「麗韓傳奇」, 友一出版社, 1981. 等.

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3, 知識産業社, 1982~1984.  
蘇在英, 「〈傳〉의 근대 문학적 성격」, 한국고전문학연구회 編, 「近代文學의 形成過程」, 文學과 知性社, 1983.  
金惠淑, op.cit. 等.

8) 李在銜, 「韓國短篇小說研究」, 一潮閣, 1975.

9) 沈晶燮, 金均泰, 金明昊, 金惠淑, 李京雨, 趙泰英, 成基玉, 朴熙乘, 等.

10) 傳 양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관해서는 朱明姬, op.cit.  
——, 「傳」의 研究 方向, 城山張德順先生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金均泰(1986-a), op.cit. 等を 참고할 것.

11) 李佑成·林燮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 上, 中, 下, 一潮閣, 1973~1978.에서 傳과 野談을 구분하지 않은 것도 상호간의 混淆를 보여 주는 것이다.

12) 소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虛構性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뜻하는 말로 썼다.

때 記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傳이 賤民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자연히 드문 일이 되고 뒤에 오면 반드시 유교 윤리만은 아닌 다른 이유로도 立傳되고 있어서 乞丐傳, 나아가 傳의 전반적 변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검토 대상으로 한 작품은 9편인데 <成進士傳>(李鈺)과 「秋齋集」의 <紀異> 2편을 곁들여 언급하였다. <成進士傳>은 걸인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걸인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작품이고, 「秋齋集」의 <紀異>는 傳의 형식을 띠고 있지는 않으나 이 중에 걸인에 관한 일화를 斷片的으로 詩와 함께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검토 대상 작품의 범위이다. 우선 立傳 對象人物의 신분을 기준으로 주인공이 걸인인 경우를 들었고 주인공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때에는 걸인이라고 추정되는 작품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걸인은 현달한 인물이 아니며 家系나 인적 사항같은 입전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乞丐傳의 경우 형식을 갖춘 正傳體는 찾아보기 힘들다. <海西丐者>(李用休)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 준다. 그러긴 해도 단순한 장면 제시에 그쳐 斷片的인 稗說에 가까운 작품—이 경우 작자에게는 뚜렷한 立傳意識이 없다 하겠다.—은 주자료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丐者李錫周傳>(陸用鼎, 1842~1888)은 豪華하다가 재물을 탕진한 후 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술을 즐기고 文士를 찬양하며磊落하게 지낸 선비 李錫周의 이야기로, 단순히 文士를 稱道하는 작품이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래 士인으로 불의의 재변이나 사건으로 인해 걸인으로 전락한 경우인데 이야기의 전개나 입전 의도가 걸인과는 별 관련이 없는 예이다.

걸인을 立傳한 예가 더 있을 것이나 이 9편으로도 乞丐傳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제 검토 대상 작품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sup>13)</sup>

作 品 名	作 者	出 典
蔣生傳	許 筠(1569~1618)	惺所覆韻藻
臥傑傳	李 選(1632~1692)	芝湖集
海西丐者	李用休(1708~1782)	惠賓雜著
八乞傳	趙宗鉉(1731~1800)	天隱亂稿
丐帥傳	成大中(1732~1812)	海叢, 青城雜記
廣文者傳 <sup>14)</sup>	朴趾源(1737~1805)	燕巖集
蔣奉事傳	李 鈺(1760~1812) <sup>15)</sup>	潭庭叢書
蔣生傳	金 鑣(1765~1821)	潭庭遺藁
索囊子傳	金 鑣(1765~1821)	潭庭遺藁

13) <海西丐者>, <丐帥傳> 외에는 모두 金均泰(1986-b), op.cit.에 실려 있다.

14) <書廣文傳後> 포함.

15) 李鈺의 生沒 年代는 金均泰(1986-a), op.cit., p.6에 의함.

양적으로 적고 시대적으로도 17·18세기에 치우쳐 있으나, 이들 작품의 立傳樣相과 결인에 대한 시각을 검토함은 조선조 賤民傳의 한 부분을, 나아가 傳의 전모를 살펴 보는 것이며 조선조 사회상의 일단을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細部的·微視的 검토를 통해 傳에 대한 전체적 鳥瞰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乞巧傳의 諸樣相과 변모 과정을 살펴 보고 그 史的 位置를 조명해 보겠다.

## II. 本 論

### 1. 乞巧傳의 諸樣相

傳의 기본 성격은 立傳人物의 특이한 행동보다 龜鑑이 되는 행위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데에 있다 하겠는데 이는 즉 勸鑑의 경우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본받아서는 안될 행위가 立傳될 경우에는 懲戒에 立傳意圖가 있다. 일반적으로 賤民 특히 결인은 그 어느 쪽에도 들지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인이 立傳된 경우, 立傳意圖를 감안해 볼 때,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결인을 위장한 인물이나 그 주변 상황을 서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前者는 한 인물의 외면과 내면이 다르고 自我와 世界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른바 "문제적 개인"<sup>16)</sup>을 立傳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이 불우한 것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가 상대하고 있는 세계의 歪曲때문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한 不遇人은 거짓 미친 체하거나 병어리 행세를 하는 등<sup>17)</sup>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특히 결인은 신선과 연관되는 일이 많다. 乞食 역시 생계 수단이라기 보다 異人<sup>18)</sup>임을 나타내는 징표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니, 결인을 方外人<sup>19)</sup>으로 보고 그 결인에게 立傳者의 심정—憧憬 내지는 同類意識—을 投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後者에서는 特長이 별로 없는 평범한 결인도 立傳되고 있으며 日常的 類型的의 市井人이 등장하고 있다. 또 결인 자체의 인간성을 긍정하고 결인을 惻隱의 눈으로

16) 問題的 個人(Problematic Individual)은 "意識的이며 表面的인 차원에서 경제적 생활은 오로지 交換價値, 즉 타락한 가치를 指向해 가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生産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의에 少數의 개인들, 즉 모든 方面에서의 창조자들이 남아 있어 본질적으로 使用價値를 指向하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들은 사회로부터 밀려 나고"(L. Goldmann, "小說社會學을 위한 序論", 柳宗鎬 編, 「文學藝術과 社會狀況」, 民音社, 1979, p.206.) 만 疎外된 局外者(outsider)를 말한다.

17) 〈癡笑先生傳〉(李瀾, 1681~1763)의 姜緒와 趙忠男.

18) "異人"은 도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과 신선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뜻으로 썼다.

19) 원래는 斯道를 좇지 않는 사람을 가리켰는데(「莊子」), 세계와의 모순을 느끼고 이에 內心으로 반발한 세계 밖의 인물을 말한다.

보고 있기도 하다. 傳의 속성상 물론 여기에도 윤리성이 底邊에 깔려 있긴 하지만 이는 乞丐傳의 본령이라 할 만하다.

前者는 다시 神異性 記述에 중점을 둔 작품과 忠, 孝, 烈 같은 유교적 윤리의 高揚과 稱賞에 의도를 둔 작품으로 나누어지고, 後者는 다시 절인의 의리, 지도력, 호쾌함 등이나 앞일을 점치는<sup>20)</sup> 비범성이 입전 동기가 된 작품과 무계획적이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세태 속에서 절인의 眞率性과 절인에 대한 愛惻心을 표출한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양상을 작품을 통해 살펴 보겠다.

### 가. 神異性

乞丐傳이라기보다 神仙傳에 가까운 작품으로, 〈蔣生傳〉(許筠, 金鑣), 〈索囊子傳〉이 여기에 속한다.

사대부는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고<sup>21)</sup> 표면적으로는 道敎的<sup>22)</sup>인 것을 싫어했지만, 實學者도 異人의 존재를 일단 긍정하고 있으니 〈金風憲傳〉, 〈金光澤傳〉, 〈李廷楷傳〉(以上 柳本學), 〈浮穆漢傳〉(李鈺)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朴趾源(〈金神仙傳〉), 丁若鏞(〈曹神仙傳〉) 등은 신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넘어 자못 부정적이기까지 하다.

#### · 〈蔣生傳〉(許筠)

먼저 작품의 구성을 살펴 보겠다.<sup>23)</sup>

1. 가계 : 아버지는 密陽 座首였다.
2. 용모 : 그림처럼 빼어났다.
3. 일화 : 특히 노래를 잘 불렀으며 소리 흉내와 가면무에 능했다. 아무리 더워도 늘 붉은 비단 점옷만을 입었다. 又鬚이 분실한 鳳尾를 찾아 주었다. 동남을 하여 다른 절인에게 나눠 주었다. 죽었다던 蔣生이 洪世燾를 만나 자기는 海東一國土를 찾아 간다면서 壬亂時의 保身策을 일러 주고는 나는듯이 사라져 버렸다(如飛而行 須臾 失所在).
3. 죽음(尸解) : 大醉歌舞 후 죽었는데, 尸身은 벌레가 되어 날아갔다.
4. 평결<sup>24)</sup> : 蔣生은 劍仙일 것이다.

20) 이 경우 疇人傳과 상통한다.

21) 子不語怪力亂神 (「論語」, 述而篇)

22) 道敎와 道家는 큰 차이가 없으나, 本稿에서는 長生不死의 神仙術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道敎的이라 함이 적합할 것이다. (cf. 車註環, 「韓國道敎思想研究」, 서울大出版部, 1978, p.22.)

23) 대체로 傳은 家系-行蹟-評結의 3단계 구성을 하고 있으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細分하여 살폈다. 이하 같음.

24) 〈蔣生傳〉에는 확연한 評結部가 없으나, 작품 末尾에 있는 작자의 견해(“余少日……”)를 評結部로 간주하였다.

許筠은 道仙의 경향이 매우 짙어서 신선을 憧憬하였으며 그 자신 신선이 되고자 노력하였다.<sup>25)</sup> “선생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지, 그가 觀相師를 만났다는 말을 반드시 믿을 것도 없고 그의 이야기도 다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선생의 나이와 건강을 볼 때) 결코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이한 일이다. ……바위 틈에 이런 異人이 있어 수천년만에 선생으로 하여금 한번 만나게 되었으니 누가 두메라서 신선이 없다고 말할 것인가. (先生先師者 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 所說亦未必盡然……此又不可決以爲實無是事也 噫其奇哉……而石巖間 乃有如此異人 累千年 俾先生一得遇之 孰謂偏壤而無其人耶)” 하는 〈南宮先生傳〉의 評結部에서도 알 수 있듯이, 許筠은 신선의 實在에 의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蔣生이 許筠 자신과 직접 교류했다고 밝히면서(余少日 狎游俠邪 與之諧謔甚親 悉觀其技) 그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許筠과 蔣生의 교류 사실이 단순히 “내용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한 것”<sup>26)</sup>만은 아닐 것이다. 작가의 생애나 사상적 경향을 작품의 주인공과 同一視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지만 蔣生은 宣祖代에 서울의 市井에서 奇行을 하며 널리 알려졌던 인물임을 「里鄉見聞錄」, 「海東異蹟」, 「天倪錄」, 「東野彙輯」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行蹟을 객관적으로 記述하는 傳 본래의 성격을 감안해 보면, 신선전은 상상이 가미되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서술했다는 점에서도 문학적으로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또, 확대 해석이 허용된다면, 自我와 世界의 乖離가 작품의 체재에서도 나타났다고 하겠으며 세계의 외곽에서 배회하는 주인공과 작가 자신을 同一視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神仙者流는 그들 자신이 무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유능함을 감추고 있을 따름이다. 골짜기 땅에다 순식간에 밭을 일구어 수확한 3000여 섬의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飄然히 떠나 버린 스님<sup>27)</sup>이나, 이 곳은 목을 굶이 못된다며 도로 배를 타고 건너 가라고 일러 주어 禍를 피하도록 해 준 碧瀾渡의 걸인<sup>28)</sup>처럼 이들은 비상한 능력을 걸으로 나타내지 않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奇行으로 엮어진 이들의 삶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하층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점은 다음의 설명이 참고가 되겠다.

일단 선인이 되고 나면 현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가치의 세계에 안주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仙人說話에서는 속인의 눈에 나타나는 선인의 모습은 될 수 있는

25) Cf. 金東旭 編, 「許筠研究」, 새문社, 1981.

崔三龍, 「韓國初期小説의 道仙思想」, 螢雪出版社, 1982.

金明昊, op.cit.

李文奎, 「許筠散文文學研究」, 三知院, 1986.

朴熙乘(1988-b·1989), op.cit. 等.

26) 李東根, “許筠「傳」의 文學史的 一考察”, 「冠岳語文研究」 13집, 서울大 國文科, 1988. p.184.

27) 「秋齋集」 卷七, 紀異, 〈龔田僧〉.

28) Ibid., 〈碧瀾丐者〉

대로 보잘 것 없는 행색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이야기 가운데 白髮童顏에 首飾杖을 짚은 모습을 연상하지만……(中略)…… 平民 속에 섞여서, 下等 吏屬이나 賣藥 行商 또는 걸객이나 때로는 병자로 나타나기도 한다.<sup>29)</sup>

·〈蔣生傳〉(金鑑)

蔣生의 이야기는 약 200년 뒤 金鑑에 의해 같은 제목으로 立傳되었으며 「東野彙輯」에도 蔣都俞으로 소개되었다. 이 작품은 許筠의 〈蔣生傳〉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세부적인 표현 차이(其貌甚都秀 眉目如畫(許)——生肥膚玉雪 目點如漆(金), 飲食數升(許)——自炊飯數升(金) 등)와 蔣生의 성장 내력 소개에 차이가 있는 점이 다른 정도이다.

許筠, 金鑑 두 사람의 作家意識面에서의 차이는 이미 논의된 바 있는데<sup>30)</sup> 又鬣의 鳳尾 분실시 보인 蔣生의 행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許筠의 〈蔣生傳〉에서는, 蔣生이 慶會樓에 이르러 청년에게 鳳尾를 돌려 받고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두 아우는 행동을 삼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취를 알게 하지 말게. (二弟慎行止 毋使世人 瞰吾蹤也)”하고 있다. 이에 비해 金鑑의 〈蔣生傳〉에서는, 蔣生이 청년을 시켜 잃은 鳳尾를 찾아 오게 하는데 청년은 이미 그 도둑을 죽였다. 이에 蔣生은 혀를 차며 “행동을 삼가 가벼이 하지 말게. (二弟慎行止 無輕自用也)”하고는 飄然히 가 버렸다. 위에서 “우리”라는 말의 차이는 크다.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蔣生은 豪民<sup>31)</sup>에 가깝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金鑑의 〈蔣生傳〉에서는 청년이 이미 도둑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鳳尾 분실을 들은 蔣生이 “취새끼같은 놈들(鼠子輩)”이라고 도둑을 칭하는 것은 金鑑의 유교적 관점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은 “처음에 한갓 입기술로 창기 사이에 사랑을 빌었으니 어찌 그리 야비하냐. (方生之始也 爲口技 乞憐諸娼妓間 何其鄙也)”는 평을 許筠의 “신기하다(噫其神矣)”는 말과 비교해 볼 때 더욱 확실해 진다. 그리고 “蔣生의 일은 실로 의심스럽다. 蔣生은 옛 劍仙者流다. 鄙·壯·靈·奇하다. 鬱鬱하여 뜻을 얻지 못한 者다. 奇異한 재주를 간직했으나 人倫의 變을 만나 스스로 괴롭게 속세를 떠나 슬픔과 외로움을 풀 따름이다. 그 정성이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해서 家道를 이루지 못하고 禽獸와 무리를 같이 하니足히 일컬을 것이 없다. (然心固疑之 …… 鬱鬱不得志者 …… 蓋生抱奇才 遭人倫之變 故爲自苦自放 以解其悲愁鬱結而已也)”고 한 것을 보면, 金鑑는 신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蔣生이 君子之道를 다하지 못했다는 유교적 기준 밑에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즉 蔣生의 행동을 他意에 의한 현실도피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다. 金鑑는 〈申啞傳〉, 〈浮穆漢傳〉 등 많은 傳을 남겼는데 그 근본은 지극히 유교적이다. 현실과의 乖離와 摩擦을 許筠이 적극적으로 그런데 비해 金鑑는 비교적 온건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인식하는 強度의 차이에서 起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金鑑가 〈蔣生傳〉을 썼다는

29) 曹壽鶴, 「韓國의 托傳과 假傳」, 嶺南大出版部, 1987, p.35.

30) 崔三龍, op.cit.

朴熙乘(1989), op.cit. 등.

31) 「惺所覆韻藻」, 卷二, 文部, 〈豪民論〉.



것 자체가 일면 신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며 나아가 신선을 希求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疎外된 개인의 所望이기도 한 것이다.

金鑑는 延興府院君 金悌男의 후손으로 老論系 時派이며 安東 金氏 勢道の 핵심 인물인 金祖淳과도 親交가 깊은, 촉망 받던 인물이었으나 姜彝天의 飛語獄事에 連累되어 鎭海에 10년간 유배되었다가 解配된 후 咸陽郡守를 지냈으며 이후 著書에 專力하였다. 그의 文體는 당시 '金鑑體'라 불릴 정도로 독특하였으며 燕巖과는 또 다른 면에서 稗史小品體를 詩에 도입했는데, 官職이라는 士大夫의 일차적 목적보다 독자적 문학관을 작품으로 구현하고자 한 疎外된 士大夫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 사실을 감안해 보면 金鑑의 傳이 方外人, 不遇人, 下層民 등을 立傳對象으로 하고 있고 현실과의 乖離나 挫折을 그리고 있으며 일면 嫌世의 이기까지 한 점을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바탕엔 유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사대부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金鑑의 이러한 태도는 燕巖 朴趾源과 軌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朴趾源은, 〈金神仙傳〉에서 “辟殺하는 者가 반드시 신선은 아니요, 鬱鬱히 뜻을 얻지 못한 者가 곧 신선(辟殺者 未必仙也 其鬱鬱不得志者也)”이라고 신선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밝히며 “清濁의 兩者에 짝집이 없고 무엇을 탐내거나 구하는 일이 없는 當世의 大隱(弘基大隱 適隱於遊 清濁無失 不伎不求 於是述金神仙)”<sup>32)</sup>인 金弘基를 기리고 있다. 또 〈閔翁傳〉에서도 閔翁의 입을 통해 “집이 가난한 이가 신선이요, 부자들은 늘 속세를 그리워하지만 가난한 이는 늘 속세를 싫어하는데 속세를 싫어하는 이가 곧 신선이 아니겠소. (家貧者 仙而 富者常戀世 貧者常厭世 厭世者 非仙耶)”하며 신선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朴趾源의 견해는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선에 대한 단순한 憧憬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sup>33)</sup> 〈金神仙傳〉은 신선에 대한 罵倒보다 不遇한 大隱의 처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放誕한 金生이, 淮陽의 員으로 부임한 친구 申生과 금강산의 山僧에 의해 거짓 仙界로 인도되어 갖은 모욕을 당한 뒤 끝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내용의 〈金剛誕遊錄〉(安瑞兩, 1664~1735)에 보이는 直說的인 神仙否定과 대비되고 있다.

·〈索囊子傳〉

1. 가계: 성은 洪으로 名家의 아들이라 하는 이도 있다.
2. 용모: 七尺 長身에 수염이 아름답고 氷玉같은 용모다. 십년이 지나도 얼굴 빛이 조금도 늙지 않았다.
3. 행적: 늘 해진 베잠방이를 입었다. 食糧이 매우 크나 한달을 먹지 않아도 허기지지 않았다. 얻은 쌀이나 옷을 다른 걸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바둑에 뛰어났는데 高手와 두어도 다만 한집으로만 이겼다. 추위에도 잘 견디었다.

32) 「燕巖集」, 「放瑯閣外傳」, 自序.

3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朴熙乘(1988-b), op.cit., p.52를 참고할 것.

4. 죽음: 어디론지 가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수십년 뒤 예와 다름없는 그를 만났다 한다.
5. 평결: 그는 마음에 간직한 바가 있는 인물이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사람이 方術을 가졌다고 꼭 이래야 되는가?

위처럼 전개되는 이 작품은 異人譚인데, 金鑑가 索囊子의 일을 立傳한 것부터가 異人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評結部에서 金鑑는 이 일을 野史에서 보고 썼음을 밝히고 있으니, “일찌기 野史를 읽다가 索囊子의 일에 이르러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余見野史至索囊子事未嘗不灑然駭也)”는 것이다. 이로 보면 索囊子의 이야기가 민간에서 前부터 云謂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金鑑는 索囊子를 不遇한 奇人으로 보면서도 <蔣生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유교적 기준과 신선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즉 索囊子가 避世했다는 견해는 “或言”이라 하여 소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는 실로 마음 속에 간직한 바 있는데도 남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나 方術을 가졌다고 꼭 이래야 되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家禍를 만나서 세상을 회피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近似하지 않은가” 하고 있는 것이다. (彼固有其中者耳 顧人未之知也 然人之有道也 何必如是而已也 或言 索囊子 名家子 善文章 遭家禍避世云 其言近之)

#### 나. 倫理性

奴婢·乞人·妓女나 吏族 같은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立傳되는 중요한 이유는 <鄭沈傳>(鄭道傳, 1337~1398), <司宰少監朴強傳>, <優人孝子君萬傳>(以上 權近), <孤行三傳>(張之琬, 1806~1858) 등에서 보듯이 忠, 孝, 烈 같은 유교적 윤리관에 맞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賤民임에도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보고 느낀 바 있으라는, 戒世의이고 다분한 敎訓的인 의도로 記述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人的事項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正傳의 형식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으며 내용이나 형식에서 傳의 典範이 될 만한 것들이다.

#### · <臥傑傳>

1. 가계: 不知何許人이다.
2. 용모: 巍巍하고 다리가 길어 方言으로 臥傑이라 불렸다.
3. 행적: 崇禎 甲申年間的 大饑饉에 80세 된 부친을 업고 轉乞하였다. 田土가 없어 농사 품팔이를 하였다. 자신의 옷은 하나도 제대로 입지 않으면서도 부친 供養에 극진했다. 사람들이 娶妻를 권하니, 妻가 있으면 먹고 입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러면 부친 奉養에 專念할 수 없다며 끝내 사양했다. 세월이 지나 得病으로 기동도 못하는 부친을 지극한 효심으로 看病하고 부친이 죽자 三年喪을 치르니,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終生토록 娶妻하지 않고 感悅에 가 살며 歲時에 늘 省墓하였는데 그 후손이 끊어지니 往來者가 없게 되었다. 병어리처럼 종일 말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였다가 나중에 이 일을 알고 크게 놀랐다.
3. 평결: 臥傑은 村間的 匹庶에 지나지 않지만 이렇게 뛰어난 행실을 보인 臥傑의 人的事項이 煙沒되어 칭송되지 못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친 봉양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 娶妻까지 마단 臥傑의 지극한 효행을 찬양하고 본받을 만한 행위가 인멸되어 널리 칭송되고 있지 않음을 개탄한 것이 立傳動機이다. 該傳은 孝行譚으로서, 立傳者는 지극히 유교적 윤리에 충실하며 臥傑의 家系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不知何許人”이라 하여 逸話 중심이 아닌 正傳의 형식을 갖추려 하고 있다. 윤리적인 면을 다루어도 <捕虎妻傳>(李鉉) 같은 경우는 民譚에 가까운 小品인데, <臥傑傳>이 傳의 본래적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작자 李選의 생애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李選은, 尤庵 宋時烈의 門人으로 文科 及第 후 檢閱, 奉教, 正言, 吏曹佐郎, 應教, 吏曹參判 등을 거친 당대의 문장가로 스승인 宋時烈과 정치적 변혁을 같이 맞은 西人인데 己巳換局 때 西人이 숙청 당하자 機張에 유배되어 죽었다. 李選은 조선조의 전형적인 사대부로 특히 禮敎의 인 점을 무엇보다 重視한 인물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작자는, 父子는 天性임에도 사랑으로 그 天性을 다한 자가 드물고(嗚呼 父子天性也 人孰無是愛而能盡其性者鮮矣) 세상이 어지럽고 風敎가 解弛해 진(其世亂敎弛) 세태에서,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부친을 섬김에 보통 사람보다 비상했으며(雖蚩氓 亦知可敬而非常人) 사랑을 다 하여 그 본성을 잃지 않은(豈非能盡其愛而不失其性之本然者耶) 점을 重視하여 立傳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친 봉양을 위해 일생을 독신으로 지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娶妻를 권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臥傑은, “내가 종일 일해도 얻는 바가 한 말 조에 불과한데 娶妻하면 먹고 입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養親에 전념할 수 없다.(臥傑 自初未娶 至是 人有願妻者 臥傑曰 吾終日勞力 所得不過斗粟 今若娶妻則 不得不衣食之 食之則不專於養親 奈何 且親年已大耄 餘日無幾 誠不忍以妻子 故損老扶養)”며 종내 사양했다. 그리하여 代가 끊기게 되니 臥傑 死後에는 당연히 奉祀하는 후손이 없게 되었다. 작자는 이 일을 옛적 華氏의 일과 歐陽公의 五代에 걸친 행적에 比擬하여 嘆賞하고 있으나(至於五十 不娶尤所卓絕 視古華氏之已事 足爲伯仲亦奇矣 昔歐陽公序五代一行傳), 이는 일면만을 보고 어느 한 쪽 즉 그 과정에만 傾倒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어쩌면 孫順<sup>34)</sup>이나 沈淸<沈淸傳>처럼 以孝傷孝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다. 게다가 轉乞하였지만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여 품삯을 보통 사람의 두 배를 받은 臥傑에게는 不娶에 대한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하겠으며 부친 사후에는 더욱 그렇다. 이는 아마도 지극한 효행에 蛇足을 달고 싶지 않은 작자의 심정이 표출된 것이기도 하며 典範的 인물일 경우 완벽함을 추구하는 傳의 속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 <八乞傳>

1. 가계: 簪纓의 族屬인 8명이 이 세상에서 때를 만나지 못해 걸인으로 숨어 지냈다.
2. 행적: 걸식한 전대물 나눔에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었다. 結義兄弟하여 나이 많은 이를 上乞로 정하고 각자 처를 얻어온 후, 십수년 걸려 열여섯 칸 집을 지어 두 칸씩 나눠 가졌는데 上下가 信儀를 따르고 서로 의심하거나 속이는 일이 없었다. 上乞이 병으로 죽자 그 처

34) 「三國遺事」, 卷五, 孝善, 第九, <孫順埋兒>.

를 잘 보살피고, 上乞을 기리는 輓詞를 써서 애도하였다.

3. 평결: 이들은 곤경 중에 만나 仁義와 信義를 지키며 金蘭之交로 일관했다. 乞인과 傑인이 결식에 의탁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니 이들은 크게 숨어 이 세상을 玩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友道와 信義를 무겁게 알았으며(重友道 尚信義) 찢어진 관과 해진 옷차림으로 마을과 저자에 다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禮를 한(破冠弊袍 行于里閭市肆之間 里人皆識而禮之) 8명 절인의 행적을 칭송한 작품인데, 유교적 기준에 의해 立傳한 것으로, 이들의 행동이 搢紳大夫에 못지 않은 점을 풀어 말하고 있다. 上乞에게 마음으로 따른 것은 信일 뿐만 아니라 결식한 것의 자기 몫을 주장하지 않고 슬기롭게 나눔은 仁이요, 上乞의 장례를 禮로 지내고 그 妻를 救恤한 것은 義라는 것이다.(其所以服人心者 不但一信字而已 取以智分以仁 葬以禮而恤其寡以義也)

그런데 작자는, 이들을 不遇하여 숨어 지내는 사람들로 단정 짓고(不遇於世 隱於乞者) 傑인과 恰似하다 하며 이들이 세상을 傲玩한 大隱이 아닌가(乞與傑相似 因托之於乞 大隱其中 傲玩斯世歟 余未可知也) 하고 있다. 前述한 대로 입전 동기는 유교적 윤리관에 기준을 두고 있지만, 末尾의 評結은 우리에게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알려 주고 있다. 하나는 여느 절인일 경우에는 이처럼 신의를 지킬 수 없다는 賤民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17·18세기에 보이는 경향—異인의 존재에 대한 긍정과 不遇於世의 隱逸之士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자 趙宗鉉이 文科에 及第한 후 司諫, 修撰, 承旨, 大司諫, 大司成, 大司憲을 거쳐 兵·刑·工·禮曹判書와 漢城判尹, 判中樞府事를 역임하며 비교적 순탄하게 벼슬을 한 전형적인 사대부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수궁이 잔다.

#### 다. 非凡性

##### · <丐帥傳><sup>35)</sup>

傳이라고 題하였지만 逸話에 가까운 것으로 丐帥의 豪快한 면모와 절인 생활의 일면을 논평없이 挿話의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海叢」과 <青城雜記>에 실려 있고 「東野彙輯」에는 <鍊戎臺丐帥張樂>이란 제목으로 옮겨져 있다.

서울 도성 안의 수백 명 거지들은 한 명의 두목을 뽑아 우두머리(丐帥)로 삼고 그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龍虎營의 牌頭가 거지들의 鍊戎臺 잔치에 風樂을 잡아 달라는 청을 거절하였다가 丐帥의 위세에 놀려 마지 못해 風樂을 排設해 주었다. 이에 진종일 시장하고 지친 기생들은 원성이 높았지만, 牌頭는 “나는 오늘 비로소 깨남아를 보았노라”며 탄식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서울에서 유명한 龍虎營 樂隊가 절인 잔치에서 놀아 주는 광경을 그렸다는

35) 李佑成·林榮澤, op.cit., 下에 소개되었다. 인용은 이에 의거함.

흥미로움을 넘어 우리에게 결인의 실상을 알려 주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많은 농민들이 결식을 하거나, 광산으로 가거나, 심지어 도둑질을 하여 延命하기도 하였다. 결식은 어떤 면에서 죽음보다 더 괴로운 일이기도 하다. 양반 신분이지만 몰락하여 燠造幕 役夫들에게 밥을 빌어 먹다가 모욕을 이기지 못하고 두 딸과 함께 죽음을 택한 洪生<sup>36)</sup> 일가족이 자살한 직접적 동기는 身分意識에 있긴 하지만, 가난하여 결식으로 延命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점은, 그 강도에 차이는 있겠으나, 결인으로 轉落할 수밖에 없었던 良民-農民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流民들이 가난에 찌들린 끝에 無賴漢으로 변해 苟且하고 무질서한 삶을 영위했음은, 江界 銀礦村에서 游食하는 무리들을 기록한 <青城雜記>의 한 편<sup>37)</sup>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으며 <千一錄>(馬夏永)에서는 流丐에 대한 대책까지 거론하고 있다.<sup>38)</sup> 銀礦村의 결인들은 礦口를 엿보고 있다가 銀을 캐내는 곳에 결사적으로 들어가 갖은 실랑이 끝에 은조각을 탈취하여 술, 고기, 새 의복 등으로 허비하고는 다시 구걸에 나서 또 礦口를 엿보며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데, 심지어 자기 아내를 내놓아 몸을 팔아 밥을 먹기도(甚或 縱妻私人而食也) 하였던 것이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농사밖에 모르던 대부분의 결인들은 타성에 젖어 무계획한 생활을 했으며, 조정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따라서 결인들의 心性은 極惡해져 갔고 무리를 지어 어떤 힘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該傳에서도 이를 알 수 있으니, 龍虎營의 樂隊를 불러 오려는 결인의 청을 거절한 牌頭에게 하는 丐帥의 말을 통해 포도청 순라꾼도 감당을 못했던 這間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丐帥는 “패두님, 이마에 구리를 깔았수? 집은 물로 지었수? 우리 떼거지 수백 명이 장안에 흩어져 있어 포도청 순라꾼도 어찌지 못하는 줄 모루? 몽둥이 하나 햇불 하나면 족합니다. 패두가 능히 무사하실 듯 싶수, 우리를 이다지 업수이 여긴단 말이오. (牌頭能銅額而水舍乎 吾徒數百人 散在城中 徼巡不問也 一棒一燧 牌頭能保無事乎 何藐視我太甚)” 하며 위협하여 牌頭의 승락을 받아내고 사과까지 받는다. 또 결인들이 摠戎廳 앞뜰에 풍악을 배설하고 노는 양을 보고 참여한 기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자 牌頭는 “아서라. 이년들, 웃지 마라. 저 꼭지딴은 내 목숨도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단다. 너희 같은 것들이야 꼭지딴 앞에 파리 목숨이다. (勿咲 彼能殺我 況若耶)”며 이를 말리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丐帥의 행동이다. 서울 도성 안의 수백 명 결인들은 모이고 흩어지는 일에 꼭지딴의 지시를 따라 조금도 어기는 일이 없었다. (都下丐者 歲常數百人…… 行止聚散 一聽其令 無敢少違) 威嚇로써 응락을 받아 내긴 했지만 丐帥는 龍虎營의 樂隊를 그들의 잔치에 끌어 들였을 뿐 아니라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樂隊에게 각듯이 사례하여 일의 마무리를 짓고 牌頭에게 快男兒 稱을 듣고 있다. (向夕丐帥前拜曰 吾徒方求夕食 敢辭諸公之勞 他日見諸道路…… 李嘆曰 吾今日始 親快男子也)

36) 「禦睡新話」, 「洪生餓死」, ibid., 中, <燠造幕>.

37) Ibid., 下, <礦山村>

38) Cf., ibid., p.165.

이 작품은 결인의 실상을 묘사한 것인데, 丐帥는 집단을 통솔하는 지도자적인 면모를 보인다. 결인에 국한해 본다면, 작품의 초점은 이 丐帥의 호쾌함과 통솔력에 있다 하겠다.

·〈廣文者傳〉

廣文(一名 達文)의 이야기는 〈達文〉(「秋齋集」〈紀異〉), 〈張福先傳〉(「潭庭叢書」)에도 나오며 「東野彙輯」에는 〈雲妓家廣文觀舞〉로 소개되어 있는데, 돈(혹은 人蔘, 銀)을 가져가지 않았나 하고 오해를 받고 이 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秋齋集」의 達文은 마흔살이 넘어서야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못간 백성들을 위해 나라에서 내려준 재물로 혼인을 한 약주름이니 그 신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아전 張福先의 俠士의 행위를 記述하고 있는 〈張福先傳〉에서는 達文의 신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

1. 가계: 廣文은 결인으로 牌頭였다.
2. 용모: 극히 醜하고 언변도 시원치 않으나 曼碩중 놀이, 鐵拐舞에 능했다.
3. 행적: 병든 거지 아이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아 동네 집에 피신한 후 그 시체를 安葬해 주었는데, 이를 의롭게 여긴 집 주인의 추천으로 약방에 고용살이를 했다. 약방에서 돈을 흥친 것으로 오해 받았으나 주인의 처조카가 한 일임이 밝혀지매 廣文은 義人으로 널리 稱道되었다. 이후 廣文이 보증을 서면 천 냥이라도 사채꾼이 그냥 빌려 주었다. 싸움 말리는 일에도 자주 나섰다.

이 작품은 뒤에 後記라고 할 만한 것이 附記되어 있으니 〈書廣文傳後〉다.

1. 見聞 經緯: 작자가 少時에 廣文을 본 일이 있으며 18세기 門下의 옛 儂人들에게서도 廣文의 이야기를 들었다.
2. 逸話: 廣文의 동생과 아들로 自處하며 대접 받던 사람이 逆謀를 꾸미다 탄로 나 벌을 받았는데, 이 때 廣文도 對質을 위해 붙잡혔었다. 그 후 자기와 교제가 있었던 일물의 안부를 表鐵柱에게 물으며 쓸쓸해 했다.
3. 後日談: 廣文도 머리와 이가 빠지고 입도 함죽해졌다.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文後不知所終云)

朴趾源의 작품이 대개 그러하듯 該傳은 묘사에서도 매우 사실적이다. 廣文의 용모를 보아도 蔣生과 달리 매우 醜陋하게 그려져 있어서,

廣文은 爲人이 극히 醜하게 생겼고 말도 남을 움직일 정도가 아니었으며 입이 커서 두 주먹이 들랑거릴 정도였다. …… 눈꼬리가 짓물러 눈썹 낀 눈으로 흘끔거리고 거짓 취한 척 트림을 하며 염소 털같은 머리를 뒷꼭지에 삼투처럼 높이 찼다. (〈廣文者傳〉) …… 廣文은 짧은 머리를 땅고 있어 귀꼬리 같았다. 이가 빠지고 입도 함죽해져 이젠 주먹을 입 안에 넣지 못했다. (〈書廣文傳後〉)

(文爲人 貌極醜 言語不能動人 口大并容兩拳 ……毗臙耳眇 陽醉嗜 羊髮北髻 ……文短髮猶辮 如鼠尾 齒豁口窞 不能內拳云)

하니, 이는 “眉目如畫”, “肌膚玉雪”인 蔣生과 대비된다.

廣文이 ‘不知所終’ 하였지만, 廣文을 대하는 朴趾源의 태도는 그를 異人視한 것도 아니고 신선으로 憧憬한 것은 더욱 아니다. 이 작품에는 評結部가 없지만 작자는 廣文의 쾌활하고 의로운 면모와 자질구레한 世事에 대한 일종의 達觀을 높이 샀다고 생각한다. ‘辭甚樸’하며 水標橋에 버려진 거지 아이의 시체를 홀로 묻어주고도 오해를 구태여 나서서 풀려고 하지 않는 등의 包容力을 귀하게 여긴 것이리라.

朴趾源이 옛 僊人들에게 閻閻의 기이한 이야기를 徵問했을 때 대개 廣文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하며, 廣文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높았다 한다. 또 豊原君 趙顯命이 기녀 粉丹에게 壓差錢을 주었을 때 수건을 동이고 난간 밑에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구냐 물으니, 粉丹이 천하에 廣文을 누가 모르겠냐고 답할 정도로 廣文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 때 豊原君이 저 사람이 너의 後陪냐며 술을 내렸다는 것을 보아 廣文은 걸인 출신으로 약방 집원 뿐 아니라 기녀의 後陪까지 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흔이 넘었어도 독신인 廣文에게 주위에서 娶妻를 권하자 廣文은 “美色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이 점은 남녀가 같다. 그런데 나는 얼굴이 醜하여 그리하지 못한다. (夫美色 衆所嗜也 然非男所獨也 唯女亦然也 故吾陋而不能自爲容也)”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女性觀과 남녀 동등에 대한 발언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이를 記述한 朴趾源의 생각과 일면 상통하는 점이기도 하며 <烈女咸陽朴氏傳>과도 연관되고 있다. 여하튼 朴趾源은 이렇게 널리 퍼진 廣文의 일화를 바탕으로 立傳하였는 바, 自序를 통해서도 입전 동기와 廣文에 대한 평을 볼 수 있다.

廣文은 窮한 거지로 명성이 사실보다 지나치나, 이름을 좋아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刑을 免치 못하였다. 하물며 명성을 흠쳐 거짓을 가지고 서로 다투려 할 것인가. 이에 廣文者傳을 쓴다.

(廣文窮巧 聲聞過情 非好名者 猶不免刑 矧復盜竊要可以爭 於是述廣文)<sup>39)</sup>

朴趾源은 廣文을 不遇人으로 보고 명성이 사실보다 지나치다고 하여 비판적 안목으로 대한다. 그리고 거짓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世態를 경계함과 아울러 범인이 지낼 수 없는 廣文의 도량, 포용력, 인간미에 대해 느낀 바 있어 立傳하였다고 하겠다.

‘不知所終’은 異人의 면모를 나타낼 때 으레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朴趾源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어디까지나 廣文의 비범한 면모를 다양하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바, 이 점은 <金神仙傳>에서 보여 준 神仙觀과 상통하고 있다.

참고로 廣文에 대한 李銜의 평을 들어 보겠다.

39) 「燕巖集」, op. cit.

근래 達文이 서울에서 俠客으로 올랐다. 나이 50에도 장가 들지 않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도 비단 옷 입은 부호들과 형님 아우님 하며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다. (은을 잃어 버린 친구에게 오해 받자 은을 가져갔다고 사과한 후 바로 갚았는데 그 후 친구 집에서 은이 나왔고 廣文은 그 친구를 너그럽게 용서하였다.) …… 具達文은 閭巷의 長者지 俠客은 아니다. 俠客이 귀하게 여기는 바는 재물을 가볍게 여겨 남을 잘 돕고 의기를 숭상하여 남의 困急함을 주선해 주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俠客이 아니겠는가? (하며 협객의 예로 어려운 이웃을 도운 평양 감영의 銀庫 庫直인 張福先을 들고 있다.)

(近世達文以俠鳴於漢 達文之爲俠也 年五十不冠 衣縑纈衣 與豪富民 被綾紗者 相兄弟 …… (綱錦子曰 具達文 閭巷之長者也 非俠也 所貴乎俠者 能輕財重施 尚義氣周困急 而不望報 斯其爲俠人乎)<sup>40)</sup>

·〈蔣奉事傳〉

1. 인물 소개 : 蔣奉事는 서울의 절인으로 士大夫家를 찾아 걸식하며 음식 맛으로 그 집의 興替 存亡을 점쳤다.
2. 問者와의 대화 : 음식으로 점치는 방법에 대한 蔣奉事의 설명과 問者의 답변.

이 작품은 士大夫家의 祭日이나 生日을 알아 두었다가 걸식하는 京師의 절인 장봉사의 奇異한 일을 논평 없이 소개하고 있는 小品이다. 단순한 장면 제시에 그치고 있으나 蔣奉事와 問者의 대화를 통해 작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니, 무엇을 점치냐는 물음에 대한 蔣奉事의 답변을 들어 보자.

나는 음식으로 점을 칩니다. ……내 일찌기 아무 尚書의 댁에 들렀더니 제사 飲福이 기이하고 화려하며 잔치 차림이 교묘하고 새롭기에 적이 걱정했더니 이제 증험이 되고, 또 일찌기 아무 太守의 댁에 들렀더니 제사 飲福이 깨끗하고 향기로왔으며 잔치 차림이 眞率하고 풍부하기에 적이 축하했더니 이제 역시 증험되었습니다. 내 남몰래 깊이 걱정하는 것은 온 세상 음식이 싱겁던 것이 날로 달콤해지고, 성기던 것이 날로 붙고, 풍족했던 것이 날로 가늘어지고, 아담했던 것이 날로 음탕하고, 전엔 반만 먹어도 싫던 것이 이제 묵은 것을 씻어도 오히려 맛이 나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음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의복은 점점 고쳐지고, 건물도 점점 커지고, 음악도 음탕해지고, 侍御들은 자꾸 예뻐지니 다른 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生財는 한도가 있는데도 民生의 용도가 끝이 없다면, 비록 하늘에서 쌀이 쏟아지고 땅에서 단술이 솟는다 하더라도 백성이 어찌 주리지 않겠습니까? 이 점이 나의 걱정하는 바입니다.

(吾以飲食卜之 …… 吾嘗過某尚書之家 其祭之駿 奇而華 其燕喜之饌 巧而新 吾竊憂之 今驗矣 又嘗過某太守之家 其祭之駿 洗而馨 其燕喜之饌 率而厚 吾竊賀之 今亦驗矣 但吾所竊然深憂者 舉

40) 「薄庭叢書」卷 十九, 桃花流水館小叢, 〈張福先傳〉.  
綱錦子는 文無子 李鈺의 別號임.



一世之饑 淡者日以甘 疏者日以黏 豐者日以纖 雅者日以淫 昔之半而饑者 今澁而未有餘 吾實不知誰使然也 且一飲食 而乃如此 則衣服之漸革也 宮室之漸夸也 音樂之漸哇也 侍御之漸侈也 可類而推矣 天地之生財有節 生民之用財無涯 雖天雨米 地湧醴 民安得不饑也 此吾之所以憂者也)

늘 소맷자락에 물이 지적지적 흘러(其袖長淋淋也) 사람들이 賤視하는 절인의 말을 통해 작자는 세태비판적인 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세상이 날로 사치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는 나아가 백성이 주릴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음식만 아는 사람이라고 의심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方術이 있군요.(問者曰 世方疑君爲飲食之人 曾有術於其間矣)” 하는 問者의 말을 통해서, 外様の 추루함 속에도 비범함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즉 蔣奉事와 같은 人物은 연암의 전에 등장하는 廣文이나 閔翁 같은 존재로, 작자들은 이들을 통해 戒世懲人의 뜻을 펴기도 하였던 것이다.<sup>41)</sup>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該傳은 절인의 비범함이 직접적인 입전 동기가 되었고 여기에 세태 비판이 실려 있는 작품으로, 〈成進士傳〉, 〈崔生員傳〉, 〈柳光億傳〉, 〈李泓傳〉 등 작자의 다른 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 롱죽 먹고 배가 아파 소리 지르는 시늉, 석쥐(鼯鼠)가 장독 밑으로 들어갔다고 외치는 시늉, 도둑이 이구석 저구석으로 달아나는 시늉 등을 嵇琴으로 그럴 듯하게 흉내 내며 결식하던 노인이 50여 년 뒤에 다시 쌀을 구하러 왔는데 그 흉내가 결국 사람을 깨닫게 해 주는 말(警人語)이더라는 이야기<sup>42)</sup>나, 결식하면서도 날마다 밥세도록 「孟子」를 읽은 洪福<sup>43)</sup>을 통해서도 절인이지만 범상함을 넘어선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라. 眞率性

##### · 〈海西丐者〉<sup>44)</sup>

조선조 후기에 절인으로 전락한 농민, 즉 流民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음은 앞에서 잠깐 살핀 바와 같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갓은 행패를 부리거나,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거나, 자기 아내를 팔아 밥을 먹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어린애의 시체를 메고 다니며 일부러 行惡을 부린 후 이를 빌미로 重賂를 받아가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니, 절인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流丐 문제가 누차 거론되기도 하였다.

41) 金均泰(1986-a), op.cit., p.172.

42) 「秋齋集」, op.cit., 〈嵇琴叟〉.

43) Ibid., 〈洪福〉.

44) 李家源, op.cit.에 소개되어 있다.

李鈺의 〈成進士傳〉에도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일껏 차려 준 밥상의 그릇까지 가져 가려 하는 절인 부부에게 成進士는 자기 그릇을 천오백 냥을 주고 다시 산다. 절인은 메고 온 아이의 屍身을 두고 訟事를 벌이려 했지만 성진사의 인품에 탄복하고 그냥 돌아 가고 있다.

〈成進士傳〉은 절인이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醜惡한 세태 속에서 너그럽고 현명하게 처신한 성진사의 태도와 官의 무능을 고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奸巧함이 날로 熾熱하고 거짓이 날로 들끓어, 굶어 죽은 屍身을 지고 밤에 남의 문 밖에서 주인을 급히 불러 일부러 그를 激怒케 하여 서로 격투를 한 다음, 주인이 내 벼를 죽였다고 떠들며 관에 고발하려 하면 주인은 연유도 모르고 많은 뇌물을 허비하고서야 일이 겨우 가라 앉는(奸狡日熾 機詐日沸 有負殍而夜抵人之門 呼主人急 仍激怒之 及至相格鬪 始大言 主人殺我侶 將詣縣告 主人 何由知 贊重賂 事僅得平)” 험악한 세태 속에서, “지극히 삼가 간사한 자도 그 꾀를 팔거나 꾀하지 못하게 한(然至謹之人 奸亦不敢賣 詐亦不敢圖)” 成進士의 謹身과 “西門豹같은 明察한 獄官이 없어 절인이 이런 짓을 하게 한(曠 苟有明察如西門豹 溢乎法 巧必不敢是矣)” 刑政의 문란 그리고 4吏의 부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成進士의 謹身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成進士傳〉의 이면적 主題는 간교가 횡행하는 時俗과 官의 무능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다.<sup>45)</sup>

여기에서 필자는 成進士를 대하는 절인의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 그릇을 거금으로 도로 산 成進士에게 절인은, 자기 아내를 불러 들여 이 분은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라며 사과하고 돈과 그릇들을 놓고 간다. (巧熟視良久 向外招其妻入曰 此非人也 佛也 解其網有死兒 乃曰……子有謹身之力故也 敢辭 遂委錢與血而去) 즉 인간 본성의 善함과 仁者를 알아 보는 눈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사과할 줄 아는 절인의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절인도 인간이라는 李鈺의 관점을 절인의 眞率한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확대 해석을 하면, 流巧의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에 起因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은, 城西便의 절인이 한 그릇 밥, 한 사발 죽의 은혜라든 보답해야 한다며 새벽마다 물을 길어 주는 이야기<sup>46)</sup>에 보이는 절인의 도덕성, 절인에 대한 愛憫心 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趙秀三은 이런 일이 날로 험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奇異한 일이라 紀異라고 命名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곁들여진 시의 한 구절을 보면 “묻지 마오, 가난이 죄지/밥 한 순 같은 은혜라 갚지 않으리(無家有累休相問 未報東鄰粥飯恩)”<sup>47)</sup> 하여 貧富와 무관하게 인간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海西丐者〉는 황해도의 절인과 작자의 伯兄(竹坡 李廣休)이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자기의 감상

45) 金均泰(1986-a), op.cit., p.174.

46) 「秋齋集」, op.cit., 〈汲水者〉

47) 詩譯은 李佑成·林燦澤, op.cit.에 따름.

을 적은 小品으로 극히 짧은 일화가 예시되고 이어 立傳者의 논평이 附記되어 있다.

1. 竹坡公과 절인과의 대화 : 辛酉年 大凶에 나이 들고 얼굴이 古怪하여 어딘지 다른 데가 있는 절인에게 출신을 물으니 농부라 하였다. 복숭아를 주니 절인은, 과실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던 어렸을 때의 鄉先生 말씀을 회상하며, 자기는 “造化의 困辱을 입은”(爲造化困) 만큼 나이를 먹은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며 겸손해 했다.
2. 평결<sup>48)</sup> : 절인의 말은 순진하여 속임이 없다. 鄉先生은 德行을 숨긴 高士이고 절인 또한 窮한 속에서도 참된 바탕을 잃지 않고 있구나. 이로 보아 거친 들판과 옛 山峽에 숨었거나, 시골 田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참된 사람이 있음을 알겠다.

評結部에 의하면 작자는, 鄉先生 崔氏가 高士인데도 사람들이 알아 보지 못했음을 슬퍼하며 또 숨겨진 참된 사람이 있을 터이므로 기록에 남긴다는 것이다. (噫 崔固高士 而隱德不銜 世鮮識者 …… 可知荒陬古峽之所藏 卑田養濟之所聚 亦自有人也 故表而錄之) 이로 보면 逸士傳에 속할 것이나<sup>49)</sup> 입전 동기는 황해도 절인의 참된 心性에 있으니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신의나 도덕이 무시되고 비정하게 변해 가는 당시 상황에서 眞率함은 찾아보기 힘든 德目이었다. 이 작품에서도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며, 窮困한 중에도 眞樸함을 잃지 않은 (窮老垂死 以眞樸未喪) 점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인간성을 긍정하고 절인 자체의 휴머니티(humanity)를 부각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절인도 똑 같은 인간이라는 命題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주 특이하거나 유교적 기준에서 칭송 받을 만한 行實이라야 立傳되는 관례에서 벗어나 賤民(乞人)을 입전 대상으로 했으며, 더우기 절인을 경멸의 대상이나 好事家의 화제로서가 아니고 ‘같은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대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물론 절인 같은 微賤한 인물에도 이처럼 眞率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마치 커다란 새 발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이 優位에 서게 되는 18세기라는 시대 상황과 각박해져 가는 당시의 세태를 감안해 볼 때, 획기적이라고 할 안목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英祖 末年에 文名을 날렸으나 布衣로 지냈던 작자 스스로의 삶과, 實學者로 일생을 농촌에 묻혀 살면서 礪溪 柳馨遠의 개혁 사상을 이어 발전시킨 작자의 叔父 星湖 李瀾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다.

## 2. 乞丐傳의 變貌 및 史的 意義

麗末 鮮初의 私傳은 개인적 가치 평가에 의한 의식의 표현으로서 당시 新進 士類들의 현실 의지의 반영이다. 이후 立傳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武人, 士女, 庶民의 孝子·孝女, 主簿, 循吏 등으

48) 작자의 견해를 밝힌 “余以爲……” 이하를 評結部로 간주하였다.

49) Cf. 조동일, op.cit., 3, p.421.

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17·18세기에는 傳을 자아의 현실 의식을 표현하는 문학 양식으로 수용하여 단순히 역사 기록이라는 傳記文學으로서의 傳이 아니었고 立傳의 대상자도 그가 가진 능력이 그 세계 속에서 용납되지 못한 逸士들이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의 실학자들과 金鑣 그룹의 傳은 市井人들이 立傳되고 있으니, 도시 상업 자본의 발전과 생활의 다양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世態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50)</sup>

조선 후기의 傳이 市井人이나 下層民을 立傳對象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野談과의 混淆 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인물의 讚賞할 만한 행적을 記述하는 行狀과 달리, 傳은 그 인물이 崇仰할 만하지 않아도 좋고 인물의 어느 일면만을 記述해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野談·逸話 그리고 小說과도 서로 넘나드는 것이다.

이들 하층민은 대개 세태를 반영하여 부도덕하고 悖惡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나, 그 반면 이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그린 경우도 있다. 後者の 경우는 朴趾源, 李德懋, 柳得恭, 李鈺, 金鑣 등의 傳에 두드러진다. 또한 이 시기에 孝子, 孝婦, 節婦 들을 立傳한 예가 상당수 있는데 이는 傳의 본래적 성격을 지키고 있는 것이며 유교적 관념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것이 우선했던 세태에 대한 逆反應이기도 하다.

우리는 乞丐傳의 여러 양상을 통해, 예컨대 15·16세기와 17·18세기에 걸친 신선전의 변모와 아울러, 傳 전체의 변모와 특성의 일단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立傳 대상 인물이 賤民(乞人)이라는 사실—즉 立傳人物의 확대는 傳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傳의 변모는 꼭 시대적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도 아니고 立傳者의 관점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며 그 내용 또한 한 작품에 다양한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는 朝鮮朝의 人物傳이 대개 18세기를 전후하여 量産된 데도 한 원인이 있으며 작자의 출신이나 생애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同時代에 여러 양상이 混在하지만, 구태여 구분해 본다면, 乞丐傳의 양상은 대체로 걸인의 異人的 행적, 神異性에 중점을 둔 작품과 忠, 孝, 烈 같은 유교적 윤리관에 기준을 두고 立傳한 작품에서 걸인의 凡常人과 다른 호쾌함, 의리, 통솔력 같은 非凡性에 초점을 맞춘 작품과 걸인의 眞率함을 높이 사서 立傳한 작품으로 즉 좀더 현실 상황과 가까운 방향으로 변모했다고 하겠다. 神異性和 倫理性을 말한 작품은 걸인의 외면과 내면이 다르며 그가 처한 주변 상황을 그리고 있고 後者の 두 가지는 걸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변모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어떤 인물의 異人的 행위를 記述한 작품은 신선전에 해당하는데, 걸식은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한 표면적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 걸인을 同情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畏怖의 대상으로 본다. 말하자면 저자에 숨은 大隱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이미 지적된 대로<sup>51)</sup> 15·16세기의 神仙憧憬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朴趾源, 李鈺, 金鑣 등에 와서는 많은

50) 金均泰(1986-a), op.cit., pp.153~154. passim.

51) 朴熙乘(1988-b, 1989), op.cit.

변화를 가져 왔지만, 이들도 신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선의 實在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 곧 神仙憧憬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선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신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선 같은인물을 希求하고 있었다는 反證이기도 하다. 그리고 非常한 능력을 지니고도 세상에서 疎外되어 있는 주인공과 立傳者 자신을 同一視하고 있다는 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유교적 윤리성을 記述한 작품은 傳 본래의 성격과 부합되는 것으로 모범적인 일을 한 절인의 행위를 表彰하고 널리 알려 본받도록 하려는 啓導의 목적이 크다고 하겠다. 後世에 典範이 될 일을 했으나 그 사람이 史書에 기록될 만한 인물은 아니어서 개인의 文集에 기록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孝行을 稱賞한 작품은 수많은 孝行傳에서 보듯 忠, 烈과 함께 어떤 인물이 立傳되는 중요한 이유이지만, 〈臥傑傳〉은 以孝傷孝의 문제를 제기해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重友道 尚信義”한 점을 높이 사서 立傳된 〈八乞傳〉에서는 절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驚異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단순한 嘆賞을 넘어 이들은 大隱이며 乞人이 아닌 傑人일 것이라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절인을 대하는 전형적 사대부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傑人이 아닌 천한 乞人은 “重友道 尚信義”할 리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절인 같은 賤民이나 市井人 중에도 범상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우기 이를 立傳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러한 절인은 逸民<sup>52)</sup>이라 할 만하다.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재주를 품고 고상한 뜻을 지닌 선비의 이름이 草野에 묻혀 드러나지 않은 자가 많음을 슬퍼한 것은<sup>53)</sup> 사대부의 공통된 생각이었을 것이다. 非凡性的의 立傳은 典範的 유형과는 거리가 멀지만 일면 戒世性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賤民에 대한 새로운 눈뜸이요, 세태 묘사나 세태 비판이기도 하다. 丐師의 지도력과 호쾌함, 廣文의 인간미와 도량, 날로 사치해져 가는 세태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蔣奉事의 음식을 통한 점술과 예언은 절인의 비범한 면을 엿보게 해 주는 것이다.

절인들의 여러 行惡과 무계획하고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 流丐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상황에도 절인의 인간성을 긍정하고 그의 眞率性을 호의적으로 記述한 작품은 賤民을 立傳했다는 점 외에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 즉 立傳된 人物의 외면과 내면이 일치되는 점을 높이 샀다는 점과 褒貶性과는 거리가 있는 傳이 산출되었다는 의의를 들 수 있다. 절인을 惻怛의 마음으로 대하며, 立傳者가 優位를 떠나 절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보았다는 점은 획기적이까지 한 것이다.

傳의 이러한 변모는 神的 類型에서 指導者的 類型으로, 다시 日常的 類型으로 바뀌었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叙事文學이 변모하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sup>54)</sup> 사실을 객관적으로 記述하는 傳의 속성상 英雄의이거나 劣等하고 諧謔的인 類型은 傳으로서보다 民譚으로 많이 전해져

52) 草野에 묻혀 있으며 세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賢者를 이른다. (cf. 「論語」, 微子篇)

53) 余悲夫古今逸羣遺跡之士 藏名草莽 煙滅無稱者 亦多(〈頓笑先生傳〉)

54) 이러한 유형 분류는 주인공의 행동에 따른 것이며 人間型的의 변화를 작품의 변모와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하는 것이다.

Cf. N. Frye 著, 임철규 譯, 「批評의 解剖」, 한길사, 1982, pp.49~101.

閔丙秀, “韓國小說發達史 上”, 「韓國文化史大系」10,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6.

온다. 게다가 傳은 人的事項이 뚜렷해야 되므로 賤民은 자연히 立傳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傳은 勸懲할 만한 인물이라야 立傳되는 것이 통례인데 賤民(乞人)이 立傳되고 초기엔 신선전이 었으나 차차 걸인 자체의 비범함과 인간미를 발견하고 이를 記述하고 있다는데서 乞丐傳의 史的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또한 立傳對象이 典範의 인물에서 異人이나 賤民으로 넓어지면서 傳은 자연스럽게 소설과 가까와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乞丐傳은 傳 본래의 성격에 충실하면서도 傳의 小說化에 박차를 가하고 賤民을 포함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傳의 이러한 변모는, 모든 현상이 그러하듯, 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를 발전이나 퇴보의 어느 한편으로 단정하는 單線的 사고는 止揚해야 할 것이다.

### Ⅲ. 結 論

지금까지 疎略하나마 乞丐傳 9편을 중심으로 작품을 評釋하고 諸樣相과 史的 意義를 살펴 보았다. 本稿는 각 작품의 세부적 분석보다 傳의 전체적 흐름 안에서 이들 작품의 史的 位置를 傳의 핵심 요소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해 본 것으로 賤民傳 研究의 一環으로 집필된 것이다.

검토 대상 작품 선정은 일단 주인공의 신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작품을 참고하였다. 다만 〈丐者李錫周傳〉은, 걸인을 立傳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文士를 稱道한 작품으로 주인공의 신분이 걸인으로 몰락한 名門의 子弟라는 점이 전혀 의의를 가지지 못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傳의 개념이나 장르적 속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논의가 활발했다. 필자는, 傳의 독립적 성격을 인정하고 문학사에서 傳이 차지하는 위치를 再照明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조 후기로 올수록 傳은 野談이나 小說과 混淆되어 변형된 경우가 많으므로, 그 구분이 모호하여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를 포괄하기 위해서도 傳의 영역을 광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傳 중에서 선별적으로 소설에 편입해야 될 것이다.

9편의 乞丐傳을 검토한 결과, 걸인의 주변을 묘사한 작품과 걸인 자체를 묘사한 작품으로 兩分되어졌다. 前者는 立傳對象 인물의 외면과 내면이 다른 경우이고 後者는 거의 같은 경우다. 또 前者는 걸인의 神異性, 儒敎的 倫理性을 나타낸 작품으로, 後者는 걸인의 지도력이나 호쾌함 같은 非凡性, 眞率性에 立傳 意圖가 있는 작품으로 나누어진다.

〈蔣生傳〉(許筠, 金鑣), 〈索囊子傳〉 등 神異性을 記述한 작품은 신선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15·16세기 이래의 神仙憧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러한 인물이 나와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당시 세태에 대한 逆反應이기도 하다. 이 경우 걸식은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선에 대해 비판적인 朝鮮祖의 典型的 士大夫도 신선

의 實在에 대해 '未知可也'식의 이중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은 자못 흥미롭다. 이러한 태도가 朴趾源에 와서는 부정적으로까지 변하고 있다.

孝行 같은 유교적 윤리성은 傳이 記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傳의 典範이 되는 경우다. 孝行譚인 〈臥傑傳〉과 오직 信字 하나로 일관한 8명 절인의 행적을 立傳한 〈八乞傳〉을 들 수 있다. 다만 養親을 위해 終生토록 娶妻하지 않아 결국 奉祀가 끊어지게 한 臥傑의 행동은 以孝傷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丐帥傳〉, 〈廣文者傳〉, 〈蔣奉事傳〉 등은 절인의 지도력, 도량, 인간미, 점술 등을 世態批判的 의도와 아울러 記述하고 있다. 절인 같은 賤民에게도 어떤 비상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또 이를 立傳까지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고까지 할 만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 오면 立傳 基準이 一律적인 가치관에 의하지 않고 見聞 사실의 평면적 묘사와 이에 따른 작자의 감상을 서술하고 있어서, 褒貶性이라는 傳 본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한다.

〈海西丐者〉 같은 작품은 비정한 세태에서 절인이 지닌 眞率한 인간성을 記述하고 있는 바, 이 역시 賤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준다. 立傳될 만한 인물도 아니고 특이한 행위가 전혀 없는데도, 海西의 절인을 隱人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대에 여러 양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꼭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양상은, 대체로 神異性·倫理性→非凡性·眞率性으로 변하고 있으며 달리 말하면 神的 類型→指導者的 類型→日常的 類型으로의 변모라고 하겠다. 英雄的 또는 諧謔的 類型은 주로 民譚이나 小說에 나타난다.

傳의 속성이 그러하듯, 대개의 乞巧傳도 異人일 경우나 褒彰할 만한 윤리적 행위에 한해 立傳되는데 이런 가운데도 賤한 부류인 절인의 비상함이나 인간미를 중심으로, 게다가 세태 묘사나 세태 비판을 하면서 立傳한 작품이 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褒貶性과는 거리가 먼 市井人, 賤民을 立傳했으며, 그것도 사실의 객관적 記述이라는 傳 본래의 성격을 지키면서도 傳의 小說化를 촉진하고 下層民의 삶을 대하는 안목을 넓혔다는 데에 乞巧傳의 文學史的 意義가 있다 하겠다. 傳이 꼭 虛構의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上述한 내용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절인이 立傳된 경우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좀더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未洽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產出된 작품을 놓고 변모 양상까지 검토하려 한 무리함이 있지 않았는가 우려된다. 또 중국의 乞巧傳을 함께 살펴지 못한 점도 아쉽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乞巧傳, 나아가 傳 변모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奴婢, 乞人, 妓女, 農民, 商人, 循吏 등의 賤民과 市井人이 立傳된 작품의 全貌를 살펴보고자 한다. 史傳이 아니라도 傳은 그 속성상 후세에 남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나 뛰어난 行蹟이 立傳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賤民이 立傳된 작품을 검토하는 일은 傳 全體의 성격과 변모를 파악하는 데 一助가 되리라 믿는다.

## 參 考 文 獻

「三國遺事」

「高麗史」

「許筠全集」

「燕巖集」(朴榮喆 刊本)

「潭庭叢書」

「秋齋集」

李家源, 「李朝漢文小說選」, 民衆書館, 1960.

李佑成·林燮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上, 中, 下, 一潮閣, 1973~1978.

林明德 主編, 「韓國漢文小說全集」, 中華民國 中國文化學院, 1980.

李家源, 「麗韓傳奇」, 友一出版社, 1981.

金均泰, 「文集所在傳資料集」, 啓明文化社, 1986.

「論語」

「莊子」

「史記」

金均泰, “傳의 장르적 考察—고려 이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刊行委 編, 「雨田辛鎬烈先生古稀紀念論叢」, 創作과 批評社, 1983.

——, 「李鈺의 文學理論과 作品世界の 研究」, 創學社, 1986.

金明晃, “神仙傳에 대하여”, —刊行委 編, 「새터姜漢永教授古稀紀念 韓國관소리·古典文學研究」, 亞細亞文化社, 1983.

金惠淑, “傳·書事(記事)·野談의 대비적 고찰—상호연관성과 관련하여”, 위의 책.

閔丙秀, “韓國小說發達史 上”, 「韓國文化史大系」10,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6.

朴熙秉, “朝鮮前期 人物傳 研究”, 「釜山漢文學研究」3집, 釜山漢文學會, 1988.

——, “異人說話와 神仙傳(I)·(II)—說話·野譚·小說과 傳 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韓國學報」53·55집, 一志社, 1988·1989.

成基玉, “傳의 장르론적 檢討”, 「울산어문논집」1집, 울산공대 국문과, 1984.

蘇在英, 〈傳〉의 근대 文學적 성격”, 한국고전문학연구회 編, 「近代文學의 形成過程」, 文學과 知性社, 1983.

李京雨, “文集所載 「傳」樣式의 變貌樣相”, 「새터姜漢永教授古稀紀念 韓國관소리·古典文學研究」, 위의 책.



- 李東根, “許筠「傳」의 文學史的 一考察”, 「冠岳語文研究」13집, 서울大 國文科, 1988.
- 李在銑, 「韓國短篇小說研究」, 一潮閣, 197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3, 知識産業社, 1982~1984.
- 曹壽鶴, 「韓國의 托傳과 假傳」, 嶺南大出版部, 1987.
- 趙泰英, “「傳」樣式的 發展樣相에 관한 研究—烈女傳 유형과 發展된 逸士傳을 중심으로—”, 서울大 碩士學位論文, 1983.
- 朱明姬, “「傳」의 樣式的 特徵과 小說로의 受容 樣相”,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85.
- , “「傳」의 研究 方向”, 城山張德順先生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 車靑環, 「韓國道教思想研究」, 서울大出版部, 1978.
- 崔三龍, 「韓國初期小說의 道仙思想」, 螢雪出版社, 1982.
- 許榕, “古小說의 人物 研究—仲裁者를 中心으로—”,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86.
- 近藤春雄, 「唐代小說の研究」, 笠間書院, 1978.
- Frye, Northrop 著, 임철규 譯, 「批評의 解剖」, 한길사, 1982.
- Goldmann, Lucien, “小說社會學을 위한 序論”, 柳宗鎬 編, 「文學藝術과 社會狀況」, 民音社, 1979.

## Summary

# A Study of *Kŏlkaejeon* (Biography of Beggar : 乞丐傳)

## —As a Part of Biography of Lower Strata

*Heo, Chun*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the concept and attribute of biography(傳). However, the area of biography should admit very wide interpretation. An important evidence for this is that, as the time comes round the latter period of Yi Dynasty(朝鮮祖), biography had become independent and had begun to be mixed with novel and unofficial version of historical tale as well.

This study reviewed nine biographies of begga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cial strata of the characters, and examined various changing patterns and their significance in literary history.

The works describing the supernatural characteristic of beggar may be a biography of supernatural being, and is interpreted as an inverse reaction to the prevailing social conditions, with a high aspiration for supernatural beings, as well as with a high expectation of such supernatural beings being emerged in society. Another important finding that the reality of supernatural being is appeared in two different reactions. The works based on Confucian ethics are the exemplary models of biography, as well as are why biography is developed. On the other hand, the works based on beggar's unusual ability such as leadership, mindedness, humanity, divination etc. show some significant changes in the perception on the original nature of bio- graphy. In particular, the works based on the original nature of biography. In particular, the works based on beggar's honesty show a new perception on the lower class people, and moreover, treat beggar as a hermit.

In the first two works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 of beggar are distinguished, while in the latter two works it rather tends to be no distinctive between the two characteristics. It is hard to conclude the changing pattern of biography in a word due to the trend of being mixed with various patterns in the same period. However, overall changing pattern may be concluded that the early biography was characterized by

beggar's supernaturalism, and followed by ethics, unusual ability, and honest in more realistic direction. In other words, the changing pattern of beggar's imagination may be concluded to follow such a way: from theological to realistic through leadership. It is a general trend that heroic or humour imagination on beggar is usually appeared in novels or folktales.

The literary-historical significances of biography of beggar are that it was the story of beggars without any critical evaluation of their behaviour; it functioned to promote biography to be a novel-typed style, maintaining the objective description of facts which is the original nature of biography; and it broadened the perspective on human life as well as the life of beggars.